

영남지역의 유교문화와 그 교육과정에 대한 모색*

- 한국학 통합·연계형 교육과 현장자료 수용을 중심으로 -

정우락**

|| 차례 ||

1. 논의의 필요성과 그 방향
2. 영남지역 유교문화의 개괄적 이해
3. 영남지역 유교문화의 현장론적 접근
4. 영남지역 유교문화의 교육과정 모색
5. 논의의 요약과 남은 문제

【국문초록】

본 논의는 (1) 영남지역의 유교문화와 그 특징을 파악하고, (2) 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교적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론적 접근을 시도한 다음, (3) 여기에 기반하여 영어강의가 포함된 새로운 개념의 통합·연계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학문현실이 전문성이라는 미명 하에 학문이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 있는 점을 비판적으로 자각하고 학제적 교섭에 따른 새로운 교육모형을 제시해 보자는 것이었다. 학문은 세분화 되면 될수록 현실과 멀어지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고립을 초래한다. 이와 반대로 학문은 통합적이면 통합적일수록 우리의 일상으로 걸어 나와서, '오늘'·'우리'와 함께 호흡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구조가 통합적이며 동시에 다른 분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남의 유교문화는 삼국시대부터 신라의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6-B00001)"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다. 특히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조선시대 16세기로 접어들어 퇴계 이황과 남명 조식이 출현하면서 유교문명은 극치에 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남은 한국유교의 주맥을 이끌어 왔으며, 강한 절의정신을 보이기도 하고, 서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적 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흐름과 특징 속에서 영남지역에는 유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산포될 수 있었다. 그것은 서원의 형태로 남아 있기도 하고, 문학창작의 현장, 혹은 전통마을의 모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본 논의는 이를 바탕으로 강의실에서 의 이론수업과 현장에서의 유적 및 유물자료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 된다고 보고, 15주 동안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학의 통합·연계성에 입각한 영어강의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은 물론이다.

주제어 영남지역, 유교문화, 교육과정, 한국학, 연계형, 현장자료, 영어강의, 분화학문, 조선시대, 서원, 전통마을, 절의정신

1. 논의의 필요성과 그 방향

오늘날 우리의 제도권 학문은 분화학문으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이 분화학문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지식을 전문화했고, 따라서 진리에 대한 미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이다. 이 세계관은 근대문명을 가져오게 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물질적 풍요 역시 근본적으로 여기에 바탕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과 교감하는 인간의 정서를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소통도 둔감하다는 측면에서 많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기계론적 세계관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계론적 세계관의 대극점에 유기체적 세계관이 있다. 이것은 개체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기계론적 세계관과는 달리 부분과 부분의 상호의존성에 입

각해서 세계를 본다. 이 세계관은 투쟁과 저항을 긍정적인 계기로 인정하는 변증법적 세계관과도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개체들의 긴밀한 협조관계 속에서 부분과 전체의 동시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자유와 평등에 입각하여 개체의 독자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제도권 학문도 분화학문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유기체적 세계관에 입각한 학문방법은 이렇게 해서 뒤로 밀려나게 되었던 것이다.

한국학은 한국인의 특유한 삶의 방식을 연구하는 일로서, 영남학과 호남학 등 다양한 지역학의 집적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에 관한 언어와 역사,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한국 고유의 것을 연구하고 啓發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한국학에 대한 연구는 한국문화의 발달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이며, 아래로는 한국역사, 한국어어, 한국문학, 한국철학, 한국종교, 한국과학, 한국경제, 한국미술, 한국법제 등 다양한 학문분야를 거느리고 있다. 연구의 편폭을 더욱 넓혀서 현대의 한국문화에까지 그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한다.

지금까지 한국학은 각자의 전공분야에서 고립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것은 부분의 독자성에 입각한 분화학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학은 분화학문의 고립성을 넘어서서 학제간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이것은 유기체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한국학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며, 교육 역시 한국학의 하위 분야가 서로 연계되면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근대 지식인은 철학자이면서 동시에 작가였고, 또한 역사가이면서 정치가였다. 이같은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한국학을 어떻게 접근하고 교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우면서도 분명한 해답이 나온다.

한국학의 통합-연계교육과 그 과정은 무엇보다 우리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최근 학생들의 관심 분야가 다양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중

합적인 지식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좀 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기초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교육과정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1) 전문적 지식은 바로 이같은 기초학문 위에 설 때 더욱 튼실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지방은 그 지역문화의 특징적 국면을 드러내면서도 그 나라의 보편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같은 상관관계를 주시하면서 지방의 문화적 특성을 교육하여야 한다. 중앙 중심의 획일적 교육을 반성하면서 동시에 지역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놓인다.

본 논의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유교문화, 그 가운데서도 영남지역의 유교문화에 한정한다.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유교문화는 영남의 대표적인 생활문화이기 때문이다. 유교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 생활문화의 근저를 이루며 정치·경제를 주도해 왔다는 것이다. 둘째, 걸출한 유학자들이 영남지방에서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東國文宗이라 일컬어지는 崔致遠(857-?)을 비롯해서 영남사림파를 이끌었던 金宗直(1431-1492), 영남의 유교문화를 한 단계 높였던 李滉(1501-1570)과 白植(1501-1572) 등 수많은 유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학문적 거점을 마련하고 활동하였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셋째, 서원 및 종가 등 많은 유교관련 문화유적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산서원과 덕천서원,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등의 다양한 유적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교육과정을 되돌아 볼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의 주변에 다양한 현장자료들이 산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국문학이나 한문학, 역사학이나 동양철학을 전공하는 학과에서도 1년에 한 두 차례의 연례행사로 답사를 하는 것이

1) 이 때의 교육과정은 학부의 것을 말한다.

교작이다. 이 행사 역시 의미가 없는 바 아니나 수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답사의 구체성과 체계성, 그리고 지속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국내 학계에서는 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아직 이에 합당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 우리의 논의는 여기에 대한 본격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영남지역 유교문화의 특징을 먼저 파악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론적 접근을 어떻게 시도할 것인가를 따지며, 여기서 더욱 나아가 일부 강좌는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개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니 삼중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²⁾ 유기체적 세계관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학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중요한 원리로 작동할 것이다. 현장자료와 학문이론은 일정한 함수관계를 지니고 있다. 이를 철저히 인식할 때, 현장론적 접근은 단순한 관광 그 이상이 될 것이며, 또한 학문적 이론은 현실성과 실천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한국학 연계 교육과정은 이같은 사유가 근거를 이룰 때 비로소 실용학문의 길이라는 활로를 찾게 된다.

2. 영남지역 유교문화의 개괄적 이해

영남은 14세기 이후 경상도가 이렇게 불리었다. 이것은 충청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있는 鳥嶺과 竹嶺, 그 이남 지방을 가리켜 부르는 말로, 嶠南이라 하기도 한다. 준령을 경계로 한 '嶺之南'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낙

2) 한국학의 영어강의는 한국학 강의내용의 충실성이 선행될 때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즉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의는 영어강의의 기술적인 측면을 특별히 강조하기보다, 그 강의내용과 강의방법의 체계성과 충실성에 기반하여 서술해나가기로 한다.

동강이 중심부를 관류하고 있어 한 도로로서의 통일성과 일체감을 가져 특색있는 영남문화권을 형성하였다.³⁾ 낙동강은 남한에서 가장 긴 강으로 총 길이가 525km이다. 이 강은 경상도에서 발원하여 경상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남의 문화는 이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상도에서의 경상은 경주와 상주를 합친 것이다. 이 명칭은 고려 충숙왕 원년(1314)에 확정되었으며 한말을 거쳐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다. 조선 중종 14년(1519)에 낙동강을 동서로 양분해서 동쪽을 경상좌도, 서쪽을 경상우도로 구분하였으나 그해에 원래대로 환원했으며, 선조 25년(1592)과 28년(1595)에 다시 좌우도로 구분했으나 이듬해 거듭 환원하였다.⁴⁾ 좌우도는 때로 상하도로 불리기도 했다. 이같이 영남은 좌도와 우도, 혹은 상도와 하도로 분리되기도 하고 이것이 다시 통합되기도 하지만, 보다 큰 영남문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영남지역에도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그리고 그 문화는 종교와 깊은 상관관계를 지니면서 형성된다.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으로서 인간에게 어떤 삶의 방식과 기준을 제시해 준다. 이 때문에 '종교는 문화의 어머니'라고 한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말은 설득력을 지닌다. 얼핏 보아 종교는 정치·경제·심리·예술·놀이 등과 마찬가지로 문화의 하위분류로 이해된다. 그러나 종교는 인간의 우주관이나 인생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보편적이면서 원초적이다.

'문화'와 '종교', 그리고 '영남'을 한 자리에 놓고 보면 구체적인 연구방향이 설정된다. 즉 영남이라는 특정한 지방의 무교, 유교, 불교, 도교, 신종교, 기독교 등이라는 일정한 범주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우리는

3)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潮閣, 1995. 14쪽.

4) 都瑠淳, 「영남학파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東方學會 편, 『嶺南學派의 研究』, 慶尙北道), 32쪽 참조.

영남의 유교문화에 집중한다. 흔히 유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한다. 내세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⁵⁾ 인생과 세계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는 '종교적(religious)'이다. 인간의 삶을 설명하면서 초월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天'이나 '理'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숭배와 관련된 제사라는 종교의식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남의 유교문화는 삼국시대부터 신라의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엄격한 골품제도 하의 육두품 출신이 그 중심에 있었다. 이들은 유교를 바탕으로 행정의 말단 업무를 처리하면서, 당시 불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진골 귀족의 횡포를 감내해야만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육두품 지식인들은 과거로 인재를 등용하는 당나라로 유학하고자 했고, 당나라에 가서 과거로 발신했던 신라의 賓貢諸子의 수가 58인에 이르렀다. 여기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바로 崔致遠(857-?)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다.

관향을 영남 가운데서 경주로 하는 최치원은 영남을 훨씬 뛰어넘어 '東國의 文宗'으로 칭송받는다. 최치원은 유교에 인식의 거점을 마련해 두었으면서도, 결국은 儒佛仙 삼교를 아우르는 화랑도야말로 '나라의 현묘한 도'라고 하면서 삼교를 포섭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보다 앞서 같은 영남사람 強首(?-692)는 유교에 더욱 철저하였다. 학문을 시작하면서 불교보다는 유교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신라 중대의 유교정치 이념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유학자였다. 신문왕 대에 설치한 '국학'에서의 경전 교육과 유교적 학술 문화 진흥은 薛聰(?-?) 등의 주목할만한 유학자를 배출하

5) 『논어』 「선진」에서 “季路問事鬼神。子曰，未能事人，焉能事鬼？曰，敢問死。曰，未知生，焉知死？”라 하였다. 공자의 가르침은 귀신보다 인간에, 죽음보다 삶에 더욱 밀착되어 있다.

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육두품을 중심으로 한 신라의 유교는, 고려조에 오면서 金富軾(1075-1151)을 배출할 수 있게 했다. 김부식은 신라 왕실의 후예로 증조인 魏英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면서 경주지방의 행정을 담당하는 州長이 되고, 김부식은 중앙관료로 진출할 때까지 그 생활의 기반을 영남지방인 경주에 두었다. 고려는 골품제가 철폐되고 과거를 통해 인재를 등용했기 때문에 문장과 유학으로 관리를 뽑았으며, 김부식은 그 재능을 십분 발휘하여 죽은 뒤 中興술에 추증되고, 인종의 廟庭에 배향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특히 『三國史記』를 지어 당대의 시대이념을 정립하고자 했다.

영남지방의 유교는 고려말 성리학을 수용하면서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된다. 주지하듯이 조선의 성리학은 1289년 고려의 충렬왕 때 安珦(1243-1306)이 원나라를 왕래하면서 직접 朱子학을 베껴 돌아오면서 시작되었다. 안향이 수입한 성리학을 더욱 발전시켰던, 白文寶(?-1374, 영해), 李齊賢(1287-1367, 경주), 李穀(1298-1351, 영주), 李穡(1328-1396, 영해), 鄭夢周(1337-1392, 영천), 鄭道傳(1337-1398, 봉화) 등은 모두 영남사람들이다. 이들은 春秋大義에 의한 명분주의를 내세우고, 주지적인 修養論의 특성을 지닌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전개·발전시켰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영남의 사림과 형성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은 도통연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영남학파는 한국 성리학의 도통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東方理學之祖'로 불리는 영천의 鄭夢周(1337-1392)에게서 시작되어, 선산의 금오산 아래에 은거하고 있었던 吉再(1353-1419)로, 길재는 다시 같은 지방의 金叔滋(1389-1456)에게로, 김숙자는 그의 아들 金宗直(1431-1492)에게로, 김종직은 달성의 金宏弼(1454-1504)과 함양의 鄭汝昌(1450-1504)에게로 이어지게 했던 것이다. 김굉필이 경기지방의 趙光祖(1482-1519)

에게 도통을 전하고, 이후 경주의 李彦迪(1491-1553)과 안동의 李滉(1501-1570)에게로 다시 이어져 조선 성리학의 도통을 형성하게 했다. 이황 이후로 노론 위주의 도맥이 형성되어 이것이 정치적 부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성리학의 수입과 완성에 영남의 지식인들이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것을 이로써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영남의 유교는 16세기 이황과 曹植(1501-1572)이 등장하면서 극치를 이룬다. 李灝(1629-1690)은 이를 두고 ‘유교의 감화와 기개를 숭상한 것이 넓은 바다와 높은 산과 같았고, 우리의 문명은 여기에서 절정에 달하였다.’⁶⁾라고 기술한 바 있거니와 이황과 조식은 각기 낙동강의 좌우에서 학단을 이끌면서 독특한 학문체계를 구축해갔다. 역시 이익의 말을 빌어보면, 이황이 仁을 숭상하였다면 조식은 義를 내세워 상보적 경쟁관계 하에서 역동적인 영남의 유교문화를 만들어 갔던 것이다. 이들의 처세관과 현실관은 사뭇 대조적인 것이었다. 이황이 현실에 대하여 온건한 태도를 지니고 리기철학을 중심으로 한 심성론을 가다듬어갔다면, 조식은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 태도를 지니고 경의철학을 바탕으로 한 실천론을 형성해갔기 때문이다.

사물인식의 방법적 측면에서 볼 때 이황은 이념적 인식에 철저하였다.⁷⁾ 이념적 인식은 사물을 ‘이치가 드러나서 유행하는 것으로 보고 대상 사물을 주체화하여 인식한다. 이념은 모든 경험에 통제를 부여하는, 즉 순수 이성에서 언어된 최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물과 자아가 ‘理’로 통할 수 있고 수양에 의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이황은 다양한 문학작품을 통해 사물에 내재한 유가적 철리의 세계를 선형적으로 인식하고, 이것과의 합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천인합일로 구체

6) 李翼, 『星湖僿說』1, 『東方人文條』, “儒化氣節, 如海濶山高, 於是乎文明之極矣.”

7) 鄭羽洛, 『退溪 李滉의 事物認識方法과 그 詩의 形象』, 『東方漢文學』24, 東方漢文學會, 2003. 참조.

화되어 나타났다.

조식은 사물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⁸⁾ 이는 인식객체인 사물과 인식주체인 자아 사이에 탄력이 부여됨으로써 객관 사물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주체적으로 재해석해 내는 것을 말한다. 즉 객관 사물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식은 현실의 부조리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의 비판 범위는 전방위적이었다. 군주와 관리에 대한 비판이 특히 신랄했다. 이것은 그의 현실관이 민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경험적 세계인식에 철저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는 흔히 이황과 그 학파를 강좌학파라 하고, 조식과 그 학파를 강우학파라 한다. 이들의 활동영역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황과 조식을 다같이 스승으로 삼으면서 낙동강 연안에서 주로 활동했던 일련의 문인군이다. 우리는 이를 江岸學派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⁹⁾ 여기에는 상주·성주·고령·대구·영천·밀양·의령·창녕·김해 등의 지역이 속하며, 학문적으로 이황과 조식을 함께 스승으로 모셨던 문인들과 그 후예들이 주로 포진하고 있다. 鄭述(1543-1620)와 寒岡學派는 그 대표적이라 할만하다.

8) 鄭羽洛, 「南冥의 事物認識方法과 詩精神의 行方 - 사물인식의 삼자 구도와 그 시적 적용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논총』 11, 남명학연구원, 2002. 참조.

9) '江岸'이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李東英은 『朝鮮朝 嶺南詩歌의 研究』(釜山大學校出版部, 1984)에서 '江岸詩歌와 그 接脈'이라는 장을 설정하여 張顯光, 高應陟, 李聘命, 曹友仁, 李泰一 등의 시가를 적극적으로 다루었고, 박병린 등도 『남명학파와 영남우도 사립』(예문서원, 2004)에서 '강안 지역의 지배사족'이라는 장을 설정하여 밀양·창녕·청도·김해·함안·의령·성주·칠곡 지역사족의 성립과정과 변화양상을 다루었다. 이 지역은 강좌 및 강우와는 또 다른 문화적 혹은 학문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 용어의 타당성과 함께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영남지역은 동서봉당 때에는 동인에 속했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되고, 북인이 몰락하면서 노론화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남인이 강한 세력을 얻고 있었다. 조식의 제자들이 대체로 북인에 참여했고, 이황의 제자들이 남인에 참여했으므로, 북인세력의 몰락을 의미하는 인조반정, 그 이후의 영남은 퇴계학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 조선후기로 가면서 남인들은 정치일선에서 소외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은 향촌에서의 유가적 질서구축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선비들은 이황의 학문을 계승하면서 서원이나 서당을 통해 자제들을 교육시켜 나갔다.

영남의 선비들이 초야에서 학문에 전념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현실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서양종교의 유입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유교건설을 부르짖었던 산청출신 李炳憲(1870-1940)의 공자교 운동은 그 대표적이다. 그리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자 유림층에서도 파리에서 개최되는 강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장문의 서한을 작성한 소위 파리장서사건, 그 중심에도 영남의 유학자 郭鍾錫(1864-1919)과 金昌淑(1879-1962)이 있었다. 이처럼 영남의 유교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안으로 학문정신을 고양하는가 하면, 밖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위태로운 국운을 바로잡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영남의 유교문화는 신라의 육두품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고려를 거쳐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 특히 유교가 국시였던 조선조에 들어 성리학을 발전시킨 중심체 역할을 했다. 이미 언급한 안향과 정몽주 등을 계승하여 이황과 조식이 각기 학파를 형성하며 영남의 유교문화는 정립되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의 후예들이 때로는 시대에 맞는 유교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하면, 때로는 유교의 춘추대의정신으로 나라구하기에 앞장서면서 현실을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갔다. 그렇다면 이같은 영남유교의 전개에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두자.

첫째, 한국유교의 주맥을 이끌어왔다는 점이다. 신라에 유교가 들어온 것은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늦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문왕대에 '국학'을 설치하고, 유교로 무장한 육두품 출신들이 행정실무를 담당하면서 일정한 한계가 있긴 했지만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러말선초의 성리학 유입기에는 안향과 정몽주 등이 주자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선의 성리학적 정신기반을 구축하게 하였다. 그리고 16세기를 거치면서 이황과 조식이 일련의 학단을 이끌면서 영남유교는 꽃을 피웠고, 이들의 제자 정구가 許穆(1595-1682)에게 실용학을 전수하면서 근기남인들의 실학을 성립할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서양의 기독교가 유입되자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위하여 이병헌은 공자교를 성립시켜 유교의 새로운 복원론을 제창하면서¹⁰⁾ 근대유교의 개혁사상을 천명하고 나섰던 것이다.

둘째, 강한 절의정신을 보인다는 점이다. 절개와 의리를 숭상하는 절의정신은 유교의 가장 기본정신이다. 이것은 고구려와 왜에 가서 신라왕의 동생을 구출하고 자신은 죽었던 영남의 충신 朴堧上에게서 비롯되지만, 구체적으로 절의정신이 형성된 것은 러말선초이다. 이성계의 조선 건국을 반대했던 이색·정몽주·이승인·길재 등은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같은 절의정신은 역사의 위기적 국면마다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단종복위를 꾀하다가 죽은 영천의 李甫欽(?-1457)과 그의 사위 밀양의 孫紱倫(?-1457), 하빈의 朴彭年(1417-1456), 안동의 河緯地(1412-1456), 영해의 李塏(1417-1456) 등의 사육신, 사회기를 맞아 절의를 지키며 무참하게 죽었던 김굉필과 정여창, 그리고 한일합방을 맞아 단식을 하다 죽은 안동 사람 李晩燾

10) 이병헌은 『儒教復原論』이라는 1책으로 된 60쪽 분량의 소책자를 남기기도 했다. 이 책은 1919년 중국의 同文印刷局에서 간행하였으며, 康有爲의 제자인 王良鳴 서문의 필사본이다.

(1842-1910), 항일의병활동과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던 許薦(1855-1908) · 柳時淵(1873-1914) · 金道和(1825-1912) · 李相龍(1858-1932)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영남의 선비 사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영남 유림은 역사의 질곡마다 일어나 유교의 근본정신인 절의정신을 굳건히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셋째, 서원을 통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은 국초부터 '학교는 교화의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륜을 밝히고 또한 인재를 이룬다'¹¹⁾고 하면서 교육입국을 천명하였다. 이 때문에 서울에 成均館과 四學을, 지방에 향교 등의 교육기관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교화적 성격보다 관리양성기구로 전락하고 교육의 본래 취지를 크게 망각하게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사람은 교학진흥책을 모색하게 되고, 급기야 사립 교육기관인 서원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영남지방에서 서원이 가장 먼저 생겼고, 또한 조선에서 가장 많은 수로 설립되었다. 가장 먼저 생긴 서원은 두루 알다시피 풍기군수 周世鵬(1495-1554)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며, 서원의 수는 전국 378개소 가운데 영남지방이 156개소로 이것은 41%를 상회하는 것이다. 156개소 가운데 조정에서 공인된 사액서원만 하더라도 57개소나 되니 영남지방의 사인들이 서원을 중심으로 벌인 교육활동이 얼마나 적극적인 것이었던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¹²⁾

넷째, 유교의 현대적 계승문제에 민감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이병헌의 공자교 운동은 교사의 위기에 직면한 유교를 새롭게 복원하기 위한 몸부

11) 鄭道傳, 『三峰集』7, 「朝鮮徑國典」學校條, “學校教化之本也, 于以明人倫, 于以成人材.”

12) 서원의 수는 최완기, 『한국의 서원』, 대원사, 1993. 19쪽을 참조하였다. 17-18세기에 한정하고 사우까지를 합하면 전국 724개소 가운데 영남은 257개소로 30%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통계는 鄭萬祚, 『朝鮮時代書院研究』, 集文堂, 1997. 142쪽에 자세히 다룬다.

림의 한 형태였다. 유교의 계승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영남지역에서는 현대적 계승문제를 고민하는 일련의 단체들이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淡水會와 博約會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담수회는 1963년에 결성되어 지난 2003년 40주년을 맞이하였다.¹³⁾ 이회는 민족문화 창달과 민족주체성 확립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립되었으며,¹⁴⁾ 2004년 현재 기관지 『淡水』 33집을 냈다. 박약회는 1987년 이황의 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유교의 현대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결성되었으며,¹⁵⁾ 2005년 현재 기관지 『博約』 13집을 냈다. 이 두 현대 유림회는 영남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서 모두 우리 시대의 심각한 도덕적 회의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 극복방향을 전통사상에서 찾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우리는 영남지역의 유교문화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또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영남지역은 신라시대 이래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학자들이 배출되었고, 조선시대의 이황과 조식이 출현하면서 소위 영남학파가 형성되고 이에 따라 조선의 유교문명은 극치에 달하였다. 여러 곡절이 있기는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남의 유교문화는 발전해왔고 오늘날도 이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남의 유교문화는 한국유교의

13) 담수회에서는 이 해에 『淡水會四十年史』(사단법인 담수회, 2003)를 발행인 鄭遠容의 이름으로 냈다.

14) 이밖에 '도와의 윤리사상을 鼓吹 昂揚하고 미풍양속을 조장하여 민족총화에 기여한다.' '사회복지 및 봉사사업에 참여하여 상부상조의 미덕을 함양한다.'는 설립목적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담수회요람』, 담수회, 2002. 및 『淡水會四十年史』, 사단법인 담수회, 2003. 588쪽 참조.

15) 박약회의 정관에 의하면 그 목적을 이렇게 설정하고 있다. "본회는 우리나라 고유의 유학문화를 연구·계승·보급하며, 이를 현대화·생활화하여 선현의 숭고한 이념을 오늘에 되살려 실천함으로써 현 실정에 맞는 유학문화를 창달·계발·계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여 도덕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博約』 13집, 사단법인 박약회, 2005. 433쪽 참조.

주맥을 이끌어 왔다는 점, 강한 절의정신을 보인다는 점, 서원을 통한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는 점, 유교의 현대적 계승문제에 민감하다는 점 등의 특징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같은 영남지역 유교문화의 역사적 구도 속에서 이 지역의 수많은 유림들은 현장자료를 남기고 있다.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이 다음 장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3. 영남지역 유교문화의 현장론적 접근

유교문화를 이해함에 있어 그 현장은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것은 통합·연계교육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문화는 분화학문에 서처럼 어떤 특정한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문학과 역사, 그리고 철학, 정치, 경제, 종교, 민속 등 모든 학문이 통합되어 있다. 예컨대 어떤 선비의 삶이 녹아 있는 정자를 답사하고자 한다면, 그 선비의 학문을 이루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정자의 건축학적 의미, 그 정자의 풍수지리학적 의미, 이밖에도 정자주변의 다양한 문화풍토에 대한 파악을 선행할 때 어떤 선비가 남긴 현장자료는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장자료는 유학자의 실천적 면모를 살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오늘날 강의실을 중심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 이론 위주의 강의는 서적을 통한 지식전달의 특정 측면만 강조되어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 그리고 빔 프로젝트 등 다양한 수업공구를 활용하여 보완한다고는 하나 일정한 한계가 없을 수 없다.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면서 보다 통합적인 유교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 유학자의 체취와 삶의 흔적이 남아 있는 현장을 직접 답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 현장에서 갖는 일련의 문제의식은 이론적이라기보다 실천적이고, 관념적이라기보다 현실적이다. '현장체험'은 무엇

보다 실천적 측면에서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장자료는 정신적 계승의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유교적 현장은 대체로 후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합당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선조의 일을 제대로 이어받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문중도 있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과 그 인물의 정신을 홍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돋보이는 곳도 있다. 그러나 계승과 홍보의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 그 현장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개제되어 있지 않다. 현장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탐방자로 하여금 끊임없이 각인시킨다.

유교문화의 현장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답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주제별 답사이고, 그 둘은 지역별 답사이며, 그 셋은 이 둘을 통합한 문화권 답사이다. 주제별 답사는 일정한 주제에 따라 지역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지역별 답사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를 같이 학습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제별 답사와 지역별 답사를 절충하는 자리에 문화권 답사가 놓인다.¹⁶⁾ 여기에는 모두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의 논의에서는 영남지역의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2장에서 언급한 이 지역의 '유교문화의 개괄적 이해'에 따라 중심인물을 염두에 두면서 주제별로 그 현장자료들을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최치원 유적을 중심으로 한 신라 유교문화의 현장자료이다. 최치원의 유적은 전국적으로 산포되어 있다. 최치원이 영남지역에서 나고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지역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장 많은

16) 필자는 인찌어 부산·울산·양산 등 동남권문화의 특성을 1) 통도사·범어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의 발달, 2) 외적의 잦은 침략에 따른 성곽문화의 발달, 3) 반구대·천전리 암각화들 중심으로 한 고대문화의 발달로 요약한 바 있다. 정우락, 「동남권 문화관광벨트」, 부산인보, 2005년 6월 6일자 참조.

유적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들 유적은 西岳書院과 文昌祠와 같이 서원과 사우의 형태로, 眞鑑禪師大空塔碑 및 文昌侯崔先生神道碑와 같이 금석문의 형태로, 學士樓와 籠山亭과 같은 누각과 정자의 형태로, 가야산 홍류동 및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臨鏡臺와 같은 자연물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그 형태적 측면이 매우 다양하다. 이들 유적이 대체로 후대인들의 추모에 의해 조성된 것이기는 하나, 그 유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최치원의 정신적 방황과 시대적 고민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최치원과 직접 관련된 유적은 없을까?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자연물에서 찾을 수 있다. 최치원은 문학작품을 통해 특정 자연을 읊조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그가 육안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감흥을 작품을 남겼던 가야산의 홍류동 계곡 일대와 낙동강 하구의 임경대 유적 등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자연과 교섭하는 최치원의 정신경계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치원은 홍류동의 거센 물소리를 통해 세상에서의 시비소리를 듣고자 하지 않는 마음을 꼭진히 껴고,¹⁷⁾ 임경대에서는 낙동강 하구의 아름다운 풍경을 회화적으로 그려내고 있다.¹⁸⁾ 이들 현장자료를 통해 우리는 신라말 최치원의 삶에 대한 고뇌와 지향정신을 밀도 있게 파악하게 된다. 다소 변화되었다고는 하나 최치원이 육안으로 보았을 그 자연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해 준다.

둘째, 정몽주와 길재 등 절의파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성리학 도입기 유교문화에 대한 현장자료이다. 東方理學之祖로 널리 알려진 정몽주의 유적은 고향인 영천시 임고면에 세워진 臨臯書院, ‘孝子里’비, 鄭夢周遺墟碑 등이 대표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구미 금오산 기슭의 길재 유적인 採薇亭

17) 崔致遠, 『孤雲集』 卷1, 「題伽椰山讀書堂」, “狂奔疊石吼重巒, 人語難分咫尺間. 常恐是非聲到耳, 故教流水盡籠山.”

18) 崔致遠, 『孤雲集』 卷1, 「黃山江臨鏡臺」, “煙巒簇簇水溶溶, 鏡裏人家對碧峯. 何處孤帆飽風去, 瞥然飛鳥杳無蹤.”

과 선산을 원리 낙동강변에 세운진 金烏書院,¹⁹⁾ 그리고 성주군에는 이승인의 유적지인 鳳山齋²⁰⁾와 安山書院²¹⁾ 및 晴暉堂 등이 집중되어 있다. 영덕군 영해면²²⁾은 이색의 출생지로 그의 유허비가 세워져 있다. 특히 부산시 기장군의 일광해수욕장에는 고려말 정몽주, 이색, 이승인 등 세 성인이 이곳을 유람해서 그렇게 명명되었다고 하는 三聖臺가 있다. 우리는 이들 유적지를 통해 영남지역 사람들이 이 시기의 유학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한다.

정몽주의 위패를 모신 임고서원은 많은 고전적과 고문서를 소장하고 있어 유명하기도 하다. 이 서원에는 200여책의 전적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10종 25책이 선별되어 보물 제1109호(지정일 : 1991년 12월 16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들 책에는 『精忠錄』 등과 같은 內賜本과 임진왜란 이전본 3종 12책을 비롯하여, 7종 13책의 筆寫本이 포함되어 있다. 임란 이전본은 조선전기 판본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며, 필사본은 서원의 창건과 운영 사적 및 이와 관련된 당대의 사회·경제적인 일국면을 살피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료들은 유교문화 가운데 하나인 서원제도를 연구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도 한다.²³⁾

19) 이밖에도 구미시에는 길재의 탄생지를 비롯해서, 묘소, 삼강정려각, 울곡사, 청룡재, 오산서원 등이 있다.

20) 봉산재는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鳳頭山 아래 위치한 것으로 성주 이씨 선대의 유허지이기도 하다.

21) 성주군 벽진면 자산리 안산촌에 위치 한 것으로 역대 성주 이씨 중에서 도덕과 문장에 뛰어난 조상 22위를 모시고 있고, 이승인은 처음부터 모셔졌던 사람이다.

22) 대구대학교 박물관은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2000년 12월 이색의 생가지 일대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3) 영천시 임고면 홈페이지(<http://www.i01000.com/ycig/asp/main/index.asp>)에는 그 전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①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② 『會纂宋岳邵武穆王精忠錄』, ③ 『論語諺解』, ④ 『璋院錄』, ⑤ 『臨阜書院考往錄』, ⑥ 『臨阜書院錢穀什物凡例贈錄』, ⑦ 『臨阜書院獎學契案附節目』, ⑧ 『環城寺決立案』, ⑨ 『臨阜書院凡規』, ⑩ 『臨阜書院 規範』

셋째,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영남사림파의 성장과 관련된 현장자료이다. 김종직은 영남 사림파의 영수이다. '사림'이란 지방 중소지주층 출신의 在野 知識人群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山中·林下란 뜻으로 조정이나 도시의 반대개념이다. 영남사림은 김종직과 그 제자들이 조정으로 나아가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로써 영남에 재지적 기반을 갖고 있었던 사림파와 그 유적은 이 지역에 광포될 수밖에 없었다. 김종직의 유적으로는 그의 위패를 모신 밀양시의 禮林書院과 생가, 다양한 수택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고령군 소재의 종택,²⁴⁾ 함양군수 시절 경영하였던 함양의 관영 차밭과 기념비 등이 그 대표적이다.²⁵⁾

김종직의 제자들 유적 역시 영남지역에는 다양하게 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를 들어보기로 하자. 김종직의 제자 김굉필의 유적으로는 그가 어린 시절 독서하던 寒暄堂이 소실되자 이것을 복원하여 새로 세운 합천군의 小學堂과 그가 배향되어 있으며 그 강당은 보물 제350호 지정되어 있는 대구시 달성군의 道東書院이 있다. 정여창의 유적으로는 濫溪書院·清溪書院·정여창 묘소·昇安寺址·정여창종택과 개평마을 등인 바 경남 함양군을 중심으로 산포되어 있다. 이밖에도 김일손을 배향한 청도군의 紫溪書院, 曹偉를 배향했던 김천시의 景廉書院址 등이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유물과 유적이 있다. 이같은 유적 유물을 통해 우리는 사림파의 진출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훈구파들의 횡포를 다각도로 되새겨보게 된다.

24) 종택에는 김종직이 당시 어전회의를 기록한 『堂後日記』와 형조판서를 재직할 때 성종으로부터 하사 받은 옥벼루 등이 보관되어 있다. 소장자는 김종직의 17대손 김병식 씨이다.

25) 김종직은 1471년(성종2)에 함양군수로 부임하였다가 차가 생산되지 않는 이 고장에 서 차를 진상해야만 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실정을 이해하고, 이에 관영다원을 만들어 조세에 대응했다. 자세한 것은 정우탁, 「김종직 문학의 주제에 관한 연구-동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문화』 17,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를 참조바란다.

넷째, 이황을 중심으로 한 퇴계학파의 유적을 들 수 있다. 16세기에 들어 영남의 유교문화는 뚜렷한 학파적 경향을 보이며 발전하였으며 이황은 그 중심에 있었다. 이황의 유적은 그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陶山書院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이황이 태어난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 태실을 비롯해서, 도산서원에서 북쪽 방향으로 3km쯤에 자리잡고 있는 토계리 상계동의 종택, 종택에서 남쪽으로 약 1km의 거리에 있는 토계리 건지산 남쪽 산봉우리에 있는 묘소와 신도비 등이 대체로 그것이다. 이밖에도 그의 문학적 상상력을 촉발시켰던 청량산 등 다양한 곳에 유적이 남아 있어 이황의 정신경계와 인간적 풍모를 느끼게 한다.

퇴계 제자들의 유적으로는 金誠一(1538-1593) 관련 유적과 柳成龍(1542-1607) 관련 유적이 대표적이다. 김성일의 유적은 그를 배향하고 있는 안동시 임하면 임하리의 虎溪書院과 서후면 금계리의 김성일 종택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존재하며 雲章閣에는 많은 유물과 고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 류성룡에 대한 유적으로는 그를 배향하고 있는 안동시 풍천면 병산리의 屏山書院과 그 종택인 忠孝堂, 그리고 그 후손들이 모여살고 있는 하회마을이 대표적이다. 특히 충효당의 永慕閣에는 국보132호인 『懲愆錄』을 비롯해서 류성룡의 유물이 일괄 보관되어 있다. 또한 영남지역에는 김성일의 제자인 張興孝(1564-1634), 류성룡의 제자인 鄭經世(1563-1633)의 유적 역시 즐비하게 있어서 퇴계학파의 왕성함을 실감하게 한다.

다섯째, 조식을 중심으로 한 남명학파의 유적을 들 수 있다. 16세기 중후기의 조식은 강우지역에서 이황과는 변별되는 敬義에 입각한 실천정신을 내세우며 학단을 이끌고 있었다. 그의 유적은 김해시 탄동에 위치한 山海亭을 비롯해서, 합천군에 위치한 생가와 雷龍亭, 만년에 살았던 지리산하 덕산의 山天齋 및 사후의 유적인 德川書院과 묘소 등이 존재한다. 이 뿐만 아니라 그의 사상력의 행방을 찾을 수 있는 양산의 雙碧樓, 영천의 玩龜

亭, 합천의 涵碧樓 등 다양한 문학현장이 있어 그의 현실에 대한 초월과 참여의 고뇌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남명학파는 인조반정과 정인홍의 실각으로 몰락하지만 이 학파의 중요 인물들의 유적은 그대로 남아 있다. 鄭仁弘(1535-1623)의 유적으로는 합천군 가야면의 浮飲亭과 묘소를 들 수 있으며, 조식의 외손서인 金宇顥(1540-1603)의 유적으로는 그를 배향한 성주군 대가면의 晴川書院과 묘소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홍의장군으로 널리 알려진 郭再祐(1552-1617)의 유적으로는 그 유물이 일괄 보관되어 있는 의령군 의령읍의 忠翼祠와 광재우가 배향되어 있는 대구시 달성군의 禮淵書院도 있다. 이밖에도 崔永慶(1529-1590)이나 趙宗道(1537-1597), 金沔(1541-1593) 등의 유적이 영남우도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어 남명학파 의병활동의 깊이와 넓이를 확인하게 한다.

여섯째, 정구를 중심으로 한 한강학파의 유적을 들 수 있다. 정구는 21세에 이황을, 24세에 조식을 그 스승으로 모시면서 영남유교의 양대산맥을 집대성하는 한편, 그의 제자 허목에게 그 학문적 맥락을 이어줌으로써 근기남인의 성립을 가능케 한 인물이다. 그의 유적으로는 탄생지인 성주군 대가면 柳東書堂을 비롯해서 그를 배향하고 있는 성주군 수륜면의 檜淵書院²⁶⁾ 등 다양하다. 특히 회연서원 뒤 鳳飛巖에서 시작하여 김천시 수도산 龍沼瀑布까지 이어지는 武屹九曲은 정구의 주자학적 정신경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 선비들의 주자시 수용의 한 양상을 확인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현장자료가 된다.

정구의 제자들은 도합 345명으로 강안지역을 중심으로 일련의 학단을 이

26) 정구가 배향되어 있는 서원은 도합 18개소이며, 이 가운데 영남지방에 존재하는 것은 9개소다. 성주의 회연서원과 천곡서원, 칠곡의 사양서원, 대구의 연경서원, 달성의 도동서원, 창원의 회원서원, 창녕의 관산서원, 언양의 반구서원, 함안의 도림서원 등이 그것으로, 현존하는 것은 회연·사양·도동·회원·반구서원 등이다.

루고 있었다. 포항시 죽장면의 立巖書院에는 張顯光(1554-1637)이 배향되어 있는데, 그는 특히 이 지역을 사랑하여 「立巖十三詠」을 읊은 바 있다. 정구는 만년에 대구 근교에 泗陽精舍를 지어놓고 강학을 했으므로, 이 시기 대구지방의 많은 선비들은 그의 제자가 된다. 이 때문에 금호강변에 정구와 徐思遠(1550-1615)의 강학소인 伊洛書堂이 있을 수 있었으며, 都應俞(1574-1639)와 慶俞(1596-1636) 형제를 배향하고 있는 대구시 달서구 소재의 屏巖書院이나 徐時立(1578-1665)을 배향하고 있는 대구시 동구 소재의 百源書院, 崔東棗(1578-1665)과 그 후손들이 사는 동구 둔산동의 옷골마을 등도 주요 유적이 된다. 이밖에도 정구의 제자 成安義(1561-1629)의 유적인 창녕의 芙蓉亭을 비롯해서, 정구의 다른 유적인 창원의 檜原書院이나 마산의 觀海亭 등 낙동강 연안을 따라 한강학파는 일정한 유교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곱째, 한말 영남지역의 유교문화의 현장자료를 들 수 있다. 한말의 영남지역 유교문화에 대한 이해는 유교가 어떻게 계승되고 혁신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 중요하다. 특히 유교의 개혁운동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데 주목할만하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李承熙(1847-1916), 柳寅植(1865-1928), 李炳憲(1870-1940), 宋基植(1878-1949)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격동기를 맞아 유교를 다각도로 개혁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즉 이승희가 새시대에 맞게 유교를 절충해보려 했다면, 유인식은 정치·사회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혁하려고 했고, 이병헌은 종교적 측면에서 유교를 재구성하려 했다. 그리고 송기식은 사회교화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면을 지니고 있었다.²⁷⁾ 문묘를 지어 공자의 영정을 모신 培山書院 등 이에 따른 유적지 역시 다양하게

27) 李完裁, 「舊韓末 嶺南지역의 儒敎改革運動」, 『철학논총』 13, 영남철학회, 1997. 참조.

존재하고 있어 한말 영남유교의 현주소를 알게 한다.

이시기 영남지역에서 활동한 유림들 가운데 의병활동을 전개한 선비들도 많았다. 金道和, 金道鉉, 許薦, 李康季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의 유적은 안동시 일직면 김도화의 강학처인 泥山亭, 영양군 청귀면의 김도현 생가, 경북 선산시 금오산 입구에 있는 허위의 유허비와 대구시 중구 달성공원 내에 있는 그의 순국기념비, 경북 문경시 가은읍의 이장년 영정각 등을 들 수 있다. 이밖에도 파리장서사건을 주도한 곽중석의 유적이 경남 거창군 가조면에 茶川書堂과 신도비 등으로 남아 있으며, 김창숙의 유적은 경북 성주군에 심산유물관과 종택 등으로 남아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영남의 유교문화사에 따라 대표적인 유적지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이밖에도 오늘날 이 지역 유교문화의 계승적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지역문화축제를 통해 계승되고 있다. 안동의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유교문화축제가 매년 열리고, 산청의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선비문화축제가 해마다 개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일은 주도하고 있으며 영남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전통마을을 중심으로 계승되고 있다. 안동의 하회마을, 안강의 양동마을, 성주의 한개마을, 대구의 옷골마을, 고령의 개실마을 등이 그것이다. 이들 마을은 전통적 양식의 가옥을 보존하면서 유교적 분위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한다. 이제 이들 현장자료를 어떻게 대학의 교육과정에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다. 다음 장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일단이다.

4. 영남지역 유교문화의 교육과정 모색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통합과 연계를 염두에 두면서 유교문화를 이해하고

교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분화학문의 체제 속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통합'은 분화학문을 인정하지 않는데서 출발한다. 이것은 자신의 전공영역을 고립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데서 가능하다. 전통시대의 유학자들이 그러하듯이 시인이면서 정치가이고, 또한 철학자이면서 역사가였던 점을 인정하면서 유교문화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계'는 오히려 분화학문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 자신의 전공분야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것으로 학문적 정체성을 마련한 다음,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른 학문분야와의 학제적 교섭을 통해 특정 문화의 본질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 통합과 연계가 맞물린 부분에 현장론이 놓인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면서 영남지역 유교문화에 대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마땅하다.

'영남지역 유교문화의 이해'를 위한 강의는 둘로 나누어 개설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어 강좌이고 다른 하나는 영어 강좌이다. 한국어 강좌는 일반 강좌와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강의하고 토론하며, 영어강좌는 일반 강좌와 달리 영어로 강의하고 토론한다. 전자의 강좌에는 한국인을 중심으로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후자의 강좌에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영어에 능통한 한국인이 참여할 수 있다. 교재 역시 한국어로 된 것과 영어로 된 것 두 가지로 만들어 이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하고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강의에 따른 제반사항은 다음과 같이 가설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강의개요 및 목적〉

본 강좌는 영남지역 유교문화의 역사적 흐름과 그 현장자료를 한국어와 영어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분화학문의 통합과 연계를 고려하면서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제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학·사학·철학·정치·민속·건축·종교 등을 통합하고 연계하면서 강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1) 영남지역 유교문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2) 그 현대

적 계승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3) 나아가 전통문화 전반의 이해를 위한 든실한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영어강좌는 영남의 유교문화를 세계로 알리는 인적 자원을 창출해 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교재 및 참고문헌〉

1) 교재 : 교수가 마련한 별도의 교재

2) 참고문헌

이민홍, 『사람파문학의 연구』, 월인, 2000.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김종석, 『퇴계학의 이해』, 일송미디어, 2001.

퇴계연구소 편,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서, 2004.

정우락,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 박이정, 1998.

이상필,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 와우출판사, 2005.

편집부, 『한말 영남유학계의 동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8.

Lewis, James and Amadu Sesay. Korea and Globalizatio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London: Routledge Curzon, 2002.

〈과제 및 평가방법〉

- 1) 과제는 조별 과제와 개별 과제로 나뉜다. 조별 과제는 각 조에 부여된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해서 발표하고 그것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을 말하고, 개별 과제는 특정 인물에 대한 과제를 개인이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조별 과제는 발표 토론한 후 수정하여 1주일 후에 제출하고, 개별 과제는 학기말에 제출한다.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특별히 두지 않고 과제물로 대신한다.
- 2) 평가방법 : 조별과제 30% 개별과제 30% 답사 및 토론참여 30% 출석 10%

〈수강에 특별히 참고해야 할 사항〉

- 1) 본 수업은 현장답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는 부여받은 과제에 대하여 답사전에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하며, 답사를 통해 확인·점검

- 하고, 답사 후에는 종합·정리하여 발표한다. 토론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은 보완·수정하여 다시 제출한다.
- 2) 영어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은 토플 600점 내외의 점수, 혹은 이에 상응하는 어학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과제물 역시 영문으로 작성해 제출한다.
 - 3) 발표 후 수정된 조별 과제와 개별 과제 가운데 우수한 것을 선정하여 학기 말에 자료집으로 엮는다.
 - 4) 조별 과제는 발표일 2일 전에 담당 교수의 강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다른 조에서는 발표일 1일 전까지 그 과제에 대한 질의서를 작성하여 역시 담당 교수의 강의 홈페이지에 올린다. 강의시간에는 이를 토대로 발표하고 토론한다.
 - 5) 조별 과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다.(예, 성리학 도입기 영남지역 유교문화와 그 현장론적 접근의 경우)
 - ① 성리학 도입기의 영남지역 유교문화의 특징, ② 한국 전역에서의 성리학 도입기 유적의 실태, ③ 영남지역 성리학 도입기의 유적 실태와 문화사적 의미, ④ 대표 유적지의 활용계획 및 개선방안, ⑤ 현장자료의 약도 및 관련 사진, ⑥ 답사후기
 - 6) 개별 과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다.(예, 최치원 유적의 경우)
 - ① 최치원의 생애와 사상, ② 한국 전역에서의 최치원 유적의 실태, ③ 영남지역 최치원 유적의 실태와 문화사적 의미, ④ 유적지의 활용계획 및 개선 방안, ⑤ 현장자료의 약도 및 관련 사진, ⑥ 답사후기
 - 7) 조는 여섯 개로 나누고, 발표 조 다음의 조는 자연스럽게 지정 토론조로 참여한다. 다른 조 역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주별 강의계획〉

- 1주 : ① 강좌개설의 취지 설명, ② 강의계획 및 강의방법 설명, ③ 참고도서에 대한 개략적 소개, ④ 수강시 유의사항
- 2주 : 영남지역의 역사·지리적 배경 및 유교문화적 특성에 대한 개괄적 이해
 - 강의, 현장학습의 이론과 실제
- 3주 :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영남지역의 유교문화
 - 강의, 관련 비디오 시청, 답사계획 수립

- 4주 : 성리학 도입기 영남지역의 유교문화
 - 강의, 관련 비디오 시청, 답사계획 수립
- 5주 : 사림파의 성장과 영남지역의 유교문화
 - 강의, 관련 비디오 시청, 답사계획 수립
- 6주 : 퇴계학과와 영남지역의 유교문화
 - 강의, 관련 비디오 시청, 답사계획 수립
- 7주 : 남명학과와 영남지역의 유교문화
 - 강의, 관련 비디오 시청, 답사계획 수립
- 8주 : 한강학과와 영남지역의 유교문화
 - 강의, 관련 비디오 시청, 답사계획 수립
- 9주 : 답사 결과보고 및 토론(1) - A조
 - 주제 : 신라시대와 고려시대 영남지역의 유교문화
- 10주 : 답사 결과보고 및 토론(2) - B조
 - 주제 : 성리학 도입기 영남지역의 유교문화
- 11주 : 답사 결과보고 및 토론(3) - C조
 - 주제 : 사림파의 성장과 영남지역의 유교문화
- 12주 : 답사 결과보고 및 토론(4) - D조
 - 주제 : 퇴계학과와 영남지역의 유교문화
- 13주 : 답사 결과보고 및 토론(5) - E조
 - 주제 : 남명학과와 영남지역의 유교문화
- 14주 : 답사 결과보고 및 토론(6) - F조
 - 주제 : 한강학과와 영남지역의 유교문화
- 15주 : 한말 영남지역의 유교문화와 현대적 계승
 - 마무리 강의

본 강좌를 수행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답사와 현장자료 촬영에 따른 다소의 비용도 예상된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문화관광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이같은 수업방식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본 강좌의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1) 이론강의와 현장답사를

병행하고, (2) 분화학문의 통합·연계성에 입각해서 한국학을 이해하며, (3) 나아가 영어를 통해 강의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한국문화의 이해를 도모, 한국학의 세계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첫째, 본 교육과정이 이론강의와 현장답사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 교양강좌는 강의실에서 실시하는 이론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실용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강의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제약에 따라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시간을 내어서 실습을 해 보는 것이 교작이다. 거의 모든 강의를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현장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같은 형태의 강의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본고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은 이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

인문학의 이론강의는 현장답사와 결부될 때 보다 높은 교육적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특히 한국학의 경우 그 현장자료들이 우리의 생활 도처에 산포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배운 것을 현장자료와 비교검토하며 심화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학생들 스스로가 관련자료를 조사하여 특정 지역의 문화지도를 만들고, 나아가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찾아내는 것은 학생 스스로에게 커다란 보람을 제공하기에 족하다. 즉 강의실에서 배운 것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이것을 현장에서 검토하여 다시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적·실용적 만족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본 교육과정은 분화학문을 통합하고 연계하여 한국학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다. 오늘날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은 지나치게 전문화되어 있다. 인문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은 서로 다른 영역으로 분화되어 있고, 그 영역은 다시 세부영역으로 분화되어 마침내 커다란 학문적 벽이 생기고 말았다. 각자 자신의 영역을 마치 봉건적인 영지처럼 지키면

서, 학제적 교섭은커녕 적대시하려는 경향마저 낳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의 이같은 학문현실을 외면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학제간의 통합논리가 지극히 정당한 것이기는 하나, 오늘날의 세분화된 학문적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이론강의와 현장답사를 병행한 교육과정은 자연스럽게 통합·연계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하나의 현장자료에는 지리학과 사회학, 철학과 문학, 건축학과 종교학 등을 포괄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현장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료를 특수한 일면으로만 이해하게 되어 결국 현장을 왜곡시키고 만다. 따라서 학제적 연대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고대-중세-근대를 아우르고, 공간적으로는 영남의 각 지역, 나아가 한국 전체의 연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²⁸⁾ 분화학문의 폐해는 이로써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임은 물론이다.

셋째, 본 교육과정의 일부는 영어로 진행되고 있어 한국학의 세계화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 대해서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는 다양한 영어강의가 개설되어 있다. 대학영어나 토익, 토플의 형태를 비롯해서 전공까지 영어로 강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포항공과대학이나 한동대학교 등에서는 많은 전공강좌가 영어로 개설되어 있고, 연세대학교에서는 2006년 1학기부터 강의 전체를 영어로 진행하는 독립 단과대학을 개설할 계획이라 한다.²⁹⁾ 이같은 계획은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28) 이같은 시각에서의 영남문화 연구방법론은 권연웅, 「영남문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嶺南學』 창간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1)에서 제시된 바 있기도 하다.

29) 연세대는 2006년 3월부터 국내 최초로 강의 전체를 영어로 진행하는 독립 단과대학(UIC) 과정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UIC는 연세대 설립자인 언더우드의 이름을 딴 것으로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의 이니셜이다. 여기서는 내국인 학생 50명과 외국인 학생 50명을 선발, 모두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첫 수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민동기, 중앙일보, 2004년 11월 15일자 참조.

있다. 본 교육과정은 바로 이같은 추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다.

한국학을 영어로 강의하는 것은 한국학을 중심으로 해서 내국인 학생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만, 국내의 지방대학으로 유학을 온 영어권 외국인 학생에게 한국학 관련 강좌를 쉽게 수강할 수 있게 한다. 즉 국제사회로 진출하려는 한국학생과 한국문화에 관심이 있는 외국학생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이중의 목적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려움 또한 따른다. 영어에 능통하면서 한국학에 깊은 조예를 갖고 있는 교수요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UCLA 한국학센터나 영국의 옥스포드대 한국어학과 등 해외의 한국학 연구기관³⁰⁾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가지는 한편, 국내에서도 영어로 한국학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영남지역의 유교문화, 그 현장론적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에 대한 특징도 생각해보았다. 즉, 이론강의와 현장답사를 병행한다는 점, 분화확문을 통합·연계하여 한국학을 이해하고자 한 점, 영어강좌를 동시에 진행시켜 한국학의 세계화에 도움이 되게 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30) 해외의 한국학 연구기관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하버드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Korea Institute, Harvard University), 듀크대학교의 한국어 프로그램(Korean Program at Duke University), UCLA의 한국학센터(UCLA Center for Korean Studies), UC 버클리의 한국연구센터(Center for Korean Studies, UC Berkeley) 등이 있으며, 하와이대와 미시간대학교 및 워싱턴대학교에도 한국어 연구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호주에는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의 한국·호주연구센터(Korea Australasia Research Centre,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모나시대학교의 한국학과(Korean Studies, Monash University)와 한국학리소스(Korean Studies Resources, Monash University)가 있으며, 영국에는 옥스포드대학의 한국어학과(Kore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Oxford), 독일에는 Tubingen대학의 한국학과(Koreanistik), 네덜란드에는 레이던대학교의 일본·한국어과(Opleiding Talen en Culturen van Japan en Korea) 등이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교육모델은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충청지역의 유교문화와 그 교육과정' 혹은 '호남지역의 유교문화와 그 교육과정' 등 여타의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유교문화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영남지역 불교문화와 그 교육과정', '영남지역 민속문화와 그 교육과정' 등 다른 학문영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같은 강좌가 여럿 개설되어 지방분권시대의 자지역 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인 실적물들을 축적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5. 논의의 요약과 남은 문제

본 논의는 세 가지의 의도를 갖고 출발하였다. 먼저 영남지역의 유교문화와 그 특징을 파악하고, 나아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교적 문화유산에 대한 현장론적 접근을 시도한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에 기반하여 영어강의가 포함된 새로운 개념의 통합·연계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학문현실이 전문성이라는 미명하에 학문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점을 비판적으로 자각하고 학제적 교섭에 따른 새로운 교육모형을 제시해 보자는 것이었다. 학문은 세분화 되면 될수록 현실과 멀어지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고립을 초래한다. 이와 반대로 학문은 통합적이면 통합적일수록 우리의 일상으로 걸어 나와서, '오늘'·'우리'와 함께 호흡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구조가 통합적이며 동시에 다른 분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근대의 지배적 사유체계인 유기체적 세계관은 이 때문에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영남의 유교문화는 삼국시대부터 신라의 수도 경주를 중심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 특히 고려말 성리학이 도입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조

선시대 16세기로 접어들어 이황과 조식이 출현하면서 유교문명은 극치에 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남은 한국유교의 주맥을 이끌어 왔으며, 강한 절의정신을 보이기도 하고, 서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현대적 계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흐름과 특징 속에서 영남지역에는 유교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수많은 유적과 유물이 산포될 수 있었다. 그것은 서원의 형태로 남아 있기도 하고, 문학창작의 현장, 혹은 전통마을의 모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본 논의는 이를 바탕으로 강의실에서의 이론 수업과 현장에서의 유적 및 유물자료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을 때 교육적 효과는 극대화 된다고 보고, 15주 동안의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한국학의 통합·연계성에 입각한 영어강의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은 물론이다. 이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따져보아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해 두자.

첫째, 본고에서 제시한 교육모델을 여타의 지역과 분야로 확대해 보는 일이다. 본고는 '영남'으로 그 지역을 한정을 하여, 이 지역의 유교문화의 개황과 현장자료를 고찰하고, 여기에 바탕하여 교육과정을 새롭게 개발한 것이다. 이것은 경기·호남·충청·강원 등 영남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 재생산해 낼 수 있다. 예컨대 '경기지방의 유교문화와 그 교육과정에 대한 모색'이 그것이다. 여타 분야로의 확대는 불교, 도교, 천주교, 민속 등 다양하다. 즉 본고에서 제시한 방법론에 따라 '영남지역의 민속문화와 그 교육과정에 대한 모색'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또한 다시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다. 이같은 확대는 학제간의 연대와 통합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본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우리문화의 종합적 이해와 이를 통한 전인적 인격형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고에서 제시한 교육모델에 다른 지역과 분야를 비교해 보는 일이

다. 영남지역 유교문화를 여타 지역과 비교문화학적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영남의 유교문화와 여러 측면에서 대비되는 호남지역의 유교문화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성은 차별성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된다. 이 때문에 양 지역의 문화적 이질성과 이와 관련된 유교문화의 이질성을 찾아내 그것으로 영남유교의 정체성을 밝히자는 것이다. 비교는 다른 학문분야와도 할 수 있다. 한국문화사의 입장에서 보면 유교가 우리 문화를 주도했다고 볼 수도 없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불선은 待對關係를 지니며 때로 화합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문화사의 표면과 이면을 장식해왔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유교문화를 다른 학문 내지 종교분야와 비교하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학 교육과정은 이를 통해 더욱 종합적이면서도 안정된 교육모델로 제시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고에서 제시한 모욕모델을 유교문화의 계승적 입장에서 논의해 보는 일이다. 사실 영남지역에는 담수회와 박약회를 중심으로 많은 유림회원들이 그 문화를 재건하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그 구성원들 절대다수가 정년을 넘긴 노년층이다. 그리고 계승의 주체도 인간성 회복이라는 지극히 추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는 바 아니나 유교문화의 비판적 계승을 위하여 보다 시급한 몇 가지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유교경전을 쉽게 번역해 내는 일, 유교의식을 정체화 하는 일, 서원이나 향교 등 전통교육기관을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본고에서 제시한 교육모델은 이론과 현장의 소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넷째, 우리의 문화유산을 어떻게 외국에 홍보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일이다. 중국의 경우를 한 예로 들어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여 문화의 현장을 보존·개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나아가 자국인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도록 한다. 이들의 처절한 구호, '고객은 우리의 명줄(顧客我的命根)'에서 볼 수 있듯이 외화벌이라는 경제적 의도가 숨어있고, 다소 과장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四川省 成都의 망강루를 중심으로 한 당나라 여류시인 설도의 유적이거나 두보초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적과 유물, 그리고 陝西省 西安의 비림박물관이나 진시황 유적 등은 수많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답사를 더욱 풍요롭게 하며 강의실에서의 이론강의를 보충할 수 있게 한다. 문화현장에 대한 중국의 이같은 보존과 개발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역시 문화유산의 국외적 홍보 및 이론강의와 현장답사의 접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논의는 지역분권시대의 대학교양으로서의 교육과정을 모색하지는 입장에 있다. 이 때문에 '영남지역'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고립되어 있지 않다. 개발한 모델을 여타의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제간 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입장에 있기도 하다. 유교는 철학적이며 동시에 문학적이고, 정치적이면서도 역사적이다. 이를 인식한다면 이에 대한 통합·연계로서의 교육과정은 우리 삶의 구조를 다각도로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우리의 논의는 한국학의 세계화라는 보다 거시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일부는 영어강의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와 한국학의 결합은 세계 속에서 우리 문화를 다시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문화관광이라는 실용 노선을 취하기도 한다. 현장론적 접근은 이 때문에 유용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이것은 거의 무시되어 왔다. 이에 대한 근본적 각성을 촉구하면서, 보다 정치한 교육프로그램과 그 운영의 방법론은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崔致遠, 『孤雲集』, 『韓國文集總刊』1, 民族文化推進黨.
- 鄭道傳, 『三峰集』, 『韓國文集總刊』5, 民族文化推進黨.
- 경상북도칠백년사편찬위원회, 『慶尙道七百年史』, 경상북도, 1999.
- 권연웅, 「영남문화 :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嶺南學』 창간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1.
- 김종석, 『퇴계학의 이해』, 일송미디어, 2001.
- 담수회, 『淡水會四十年史』, 사단법인 담수회, 2003.
- 동방학회 편, 『영남학과의 연구』, 경상북도, 1998.
- 민동기, 「연세대 '영어전용강의' 단과대 개설」, 『중앙일보』, 2004년 11월 15일자.
- 박병련 외, 『남명학파와 영남우도 사립』, 예문서원, 2004.
- 李東英, 『朝鮮朝 嶺南詩歌의 研究』, 釜山大學校出版部, 1984.
- 이민홍, 『사림파문학의 연구』, 월인, 2000.
- 이상필, 『남명학파의 형성과 전개』, 와우출판사, 2005.
-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 정우락, 「김종직 문학의 주제에 관한 연구-동국문화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문화』17, 한국사상문화학회, 2002.
- 정우락, 「南冥의 事物認識方法과 詩精神의 行方 - 사물인식의 삼각 구도와 그 시적 적용을 중심으로」, 『남명학연구논총』11, 남명학연구원, 2002.
- 정우락, 『남명문학의 철학적 접근』, 박이정, 1998.
- 정우락, 『退溪 李滉의 事物認識方法과 그 詩의 形象』, 『東方漢文學』24, 東方漢文學會, 2003.
- 조동일, 제2편 『한국문학사상사시론』, 지식산업사, 2003.
- 조홍윤, 『한국종교문화론』, 동문선, 2002.
- 최준식, 『한국종교이야기』, 한울, 1995.
- 퇴계연구소 편, 『퇴계학맥의 지역적 전개』, 보고사, 2004.
- 편집부, 『한말 영남유학계의 동향』, 영남대학교 출판부, 1998.
- Buddhism and Its Culture in Korea*. Dongguk University Press, 1964.

- Coleman, Craig S. ed. *A Guide to Korean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한국학 연구 안내서. Los Angeles, California: The Korea Society, 193.
- Covell, Jon Carter. *Korea's Cultural Roots*. 1981: Elizabeth, New Jersey · Seoul: Hollym International Corp., 1983.
- Eckert, Carter J., et al. *Korea Old and New A History*. Seoul: Ilchokak, Publishers, 1990.
- Grayson, James Huntley. *Korea A Religious History*. Oxford: Routledge Curzon, 2002.
- Joe, Wanne J. *Traditional Korea A Cultural History*. Seoul: Chungang University Press, 1972.
- Lewis, James and Amadu Sesay. *Korea and Globalizatio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London: RoutledgeCurzon, 2002.
- 네덜란드 레이던대학교 한국어과 홈페이지, <http://www.koreaans.leidenuniv.nl/>
- 독일 Tubingen대학 한국학과 홈페이지, <http://www.uni-tuebingen.de/koreanistik/>
- 미국 듀크대학교 한국어프로그램 홈페이지, <http://www.duke.edu/web/aall/korean/>
- 미국 미시간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umich.edu>
- 미국 워싱턴 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washington.edu>
- 미국 하버드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fas.harvard.edu/~korea/index.html>
- 미국 UC 버클리 한국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ieas.berkeley.edu/cks/>
- 미국 UCLA 한국학센터 홈페이지, <http://www.isop.ucla.edu/korea/>
- 영국 옥스퍼드대학 한국어학과 홈페이지, <http://www.orinst.ox.ac.uk/ea/korean/>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한국·호주 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karec.web.unsw.edu.au/>
- 호주 모나시대학교 한국학과 홈페이지, <http://www.arts.monash.edu.au/korean/>
- 호주 모나시대학교 한국학리소스 홈페이지, <http://www.lib.monash.edu.au/subjects/korean/index.html>

Abstract

A Study on the Confucian Culture and Curriculum in the Yeongnam Region

- With a focus on the integrated and connected education of
Koreanology and adoption of field data -

Jeong, Woo-Lak

This study was designed (1)to understand the Confucian culture of the Yeongnam Region and its characteristics, (2)to take a contextual approach to the Confucian cultural assets representative of the region, and (3)to develop an integrated and connected curriculum of a new concept with the inclusion of English lectures. It started from the critical recognition that the Korean academy was too much segmented under the name of specialty and from the determination to suggest a new kind of education model according to negotiations between educational systems. It's only natural that academic knowledge should detach itself from the reality and cause itself to be isolated as the action of segmentation grows stronger. On the contrary, the more integrated it is, the more it reflects our everyday life and breathes along with 'us' of 'today' since our life structures are integrated and connected to other areas.

The Confucian culture of the Yeongnam Region has constantly developed centered around Gyeongju, the capital of Shilla, since the period of Three Ancient Kingdoms. It led the movement to introduce Neo-Confucianism into Korea in the late Goryeo dynasty and reached its peak entering the 16th century during the Chosun dynasty with the performance of Lee Hwang and Jo Shik. During the process, Yeongnam played the leading role in the Korean Confucianism, showed a strong fidelity to its principles, and conducted active educational activities through lecture halls.

It seems obvious how seriously they thought about the ways to pass down its Confucian heritage according to the modern times. In addition to thos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nfucian culture in the Yeongnam Region, the region is enriched with lots of relics and artifacts to promote its understanding. They exist in various forms such as a lecture hall,

literary work, and traditional village. Based on those, this study assumed that the educational effects would be maximized when the theoretical learning in the classroom made organic relations with the relics and artifacts on the field, and suggested a 15-week curriculum. It's, of course, designed to include English lectures considering the integrated and connected features of Koreanology.

Key Word

the Yeongnam Region, Confucian culture, curriculum, Koreanology, connected, field data, English lectures, differentiated studies, Chosun dynasty, lecture hall, traditional village, fidelity to one's principle